

# 여권발급 수수료 현찰로만...

## 카드결제 외면 민원인 '낭패'...발길돌리기 일쑤

### “이용자 편의 무시·카드 활성화 정책 외면” 지적

여권발급 수수료를 지불할 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편리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16일 오후 2시께 부산시청 여권발급창구. 30여명의 시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 앞에 대기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7~8명은 여권발급창구가 아닌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줄지어 있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풍경이다.

여권발급자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5년짜리 복수여권의 경우 수수료가 4만7천원이나 되다보니 현금이 모자라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도 상당수다. 박모(24·여)씨는 “당연히 신용카드

를 받을 줄 알고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낭패를 겪게 됐다”면서 “어느 가게에서건 카드가 다 통용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타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수백원이나 1천여원의 수수료를 물고 현금을 찾는 이들도 많았다. 김모(35)씨는 “내가 거래하는 은

행이 아니라서 급하게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뽑게 됐다”며 “요즘은 세금이나 과태료 등도 카드로 결제되는데 여권발급만 유독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여권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 사상구청과 해운대구 청 등도 마찬가지다. 부산지역의 경우 여권발급 건수가 하루 평균 1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발급 수요가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부산시 등 지자체는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외교통상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하려면 여권발급 수수료 가운데 일부인 1.5% 내외를 카드회사에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돼 시행을 미뤘었다”면서 “조만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영락공원 내 가족납골묘 조성

부산 영락공원에 가족납골묘가 조성된다. 그동안 사실 가족납골묘는 빈번하게 조성돼 왔으나 영락공원에서도 같은 공설 가족납골묘는 부산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부산시는 영락공원 내 74만3천219㎡의 부지에 조성돼 있는 분묘 2만9천21기를 점진적으로 평장식(平葬式) 가족납골묘 형태로 바뀌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의 계획은 우선 1단계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묘 960여기에 대해 가족납골묘로 우선 보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기사용 분묘에 대해서는 희망 유가족들의 접수를 받아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족납골묘는 시신 1구가 매장되는 1.5평 규모의 기존 분묘를 1개 묘당 6~12기를 납골할 수 있는 가족묘 형태로 바뀐다는 것. 조성될가는 1개 가족묘당 350만~4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공설 가족납골묘는 총복 총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장묘제도,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현재 정국회의에 계류 중이다. 임광명기자 kmyim@

내일의 날씨 <18일> 해출 06:32, 해침 17:46, 달출 02:41, 달침 15:56

생활지수: 외출지수 90, 나들이 좋아요, 빨래 하세요, 식중독지수 70, 음식 조심, 수면지수 70, 쾌적한 편임

지역	날씨	기온
서울	구름	13~23 / 10 / 10
대전	구름	13~24 / 10 / 10
광주	구름	14~25 / 10 / 10
대구	구름	15~25 / 20 / 10
부산	구름	15~25 / 20 / 10
제주	구름	18~24 / 10 / 10

바다날씨	주간날씨
남해동부: 북서~북동 7~12 1.0~2.0	19 목: 구름
남해서부: 북서~북동 6~9 0.5~1.0	20 금: 구름
동해남부: 북서~북동 8~12 1.0~2.0	21 토: 구름
동해중부: 북동~남동 8~13 1.0~2.5	22 일: 구름
서해남부: 북서~북동 6~11 0.5~1.5	23 월: 구름
서해중부: 북서~북동 6~11 0.5~1.5	

만 조	간 조
부산: 06:17/18:22, 03:07/13:29	12:09 / --, 08:04/20:55
포항: 06:45/18:59	00:39/12:40

www.weatheri.co.kr 02-704-0030



“명복을 빕니다” 1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거행된 고 홍남순 변호사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동차 번호판 혼란스러워요”

내달부터 새번호판... 4가지 종류 거리 활개  
30개월간 3차례 바뀌어 업체도 디자인 고민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자가용 차량은 가로 길이가 길어진 흰색 바탕에 검정글씨 새겨진 새 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번호판 관련 정책을 몇차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다음 달부터 네 가지 번호판을 단 자가용이 돌아다니게 되는 등 번호판 교체와 관련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번호판은=새로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자가용)의 규격은 가로 52cm, 세로 11cm. 현재 쓰이는 번호판보다 가로 길이는 18.5cm 길어진 반면 세로는 6cm가 줄었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생산 중인 대부분의 자동차(자가용)는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번호판에 비해 가로 길이는 같지만 세로가 1.5cm 줄어든 번호판도 함께 부착하도록 했다.

운전자들은 새 차를 구입한 뒤 신규 등록시 페이스 슈프트나 플체인지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짧은 규격

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헛갈리는 운전자들=부산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지난 9월 말 이후 번호판 관련 문의가 늘어 하루 40~60건씩 들어오고 있다. 사업소 게시판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하다”, “도대체 번호판을 갖고 정책 실험을 하느냐”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이 차량 보유자들에게 혼란을 준 데는 2004년 1월 이후 번호판 관련 정책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다음달부터는 기존의 00가 0000식의 전국 번호판과 지역 번호판, 가로면이 긴 번호판과 기존 번호판과 가로 길이는 같지만 색깔이 다른 번호판 등 네가지 번호판이 혼재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업체=국내 5개 완성차 가운데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신형 아반떼, 신형 투스카니 3개 모델만이 다음달 1일 출고분부터 가로



형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다. 건교부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페이스 슈프트(부분 변경) 이상의 모델 변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는 신규 모델에 대해 번호판 교체에 따른 뒷번호나 리어램프, 머플러 등의 디자인 변경을 놓고 고민 중이다. GM대우는 12월 내놓을 토스카 디젤부터, 르노삼성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SUV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동진기자 djbae@

## 지리산 인기 설악산 절반 못미쳐

###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 66% 압도적 지지

산림청 '산림선호도' 설문 조사에서 '좋아하는 산'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9%가 설악산을 꼽았고 지리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9%에 그쳐 '국립공원 1호'의 명예를 무색케 했다.

설악산은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얻은 가운데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과 50대 이상에서 인기가 높았고, 지리산은 30, 40대와 전 문산악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등산인구는 주1회 이상이 16.4%, 한달에 1회 이상 23.3%, 연

1~2회 이상 29.8% 등으로 조사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월 1회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층에서 방문 빈도 및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20~30대 젊은층보다 40대 이상 청장년층의 등산 인구가 많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가 66.1%로 압도적 인 지지를 얻어 우리나라 대표 수종(樹種)임을 재확인시켜 줬고 은행나무(9.1%)가 뒤를 이었다.

좋아하는 꽃나무는 뽕나무(22.9%), 목련(11.5%), 무궁화(8.5%), 진달래(7.5%) 순이었으며 좋아하는 가로수로는 은행나무(45.9%), 뽕나무(25.4%), 플라타너스(14.0%)였다.

이선규기자 sunq17@